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161절-168절

시편 119편은 8절씩 2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은 「아래후」「벳트」(영어로 말하면 AB)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글자가 여덟개씩 완벽하게 머릿부분에 나열되
 각단락을 「아래후 시편」「벳트 시편」이라는 식으로 부릅니다.

시편 전편 176편중에서 가장 장대한 긴 시편입니다만,
 주제는 매우 분명해, 중심 테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존재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각 절의 문장에는
 「율법」「증거」「법도」「규례」「명령」「심판」「말씀」「주의 말씀의 강령」「길」등의
 열가지의 단어들 이 교대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61절에서 168절은 「신 시편」으로,
 각절의 머리부분은 모두 히브리어의 글자, 영어로는 S에 해당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161절)

갑자기 「고관들,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시인한테는 잘못이 없는데 「거짓으로」시인을 핍박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실로 담대한 고백입니다.
 「고관들」의 힘은 「칼」에 있습니다.
 그 「고관들」이 칼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만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세상의 그 어떤 「고관들」이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람의 말은 두려워할게 못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시인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162절)

「탈취물」은 「전리품, 이익」의 단수형입니다.
 게다가 「많은」전리품이기에,
 보물상자나 상당히 고가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최상의 기쁨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 최고의 기쁨을 시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빛이 비취집니다.
 힘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희망이 넘쳐흐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163절)

「거짓」은 「속임수, 허무함, 허위」라는 의미입니다.

언뜻보기에는 사실처럼 보여도 실은 허위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고관들」또한 이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더 강한 분이 있으시기에, 그분이야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분, 진정 가치 있는 분, 정말로 의지가 되는 분을 시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철저히 「미워하며 싫어」하고,

그리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이야말로,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신뢰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좋아하게 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일방적인 무조건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사람이 주어이기에,

시인은 이 세상의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별해 선택해서,

그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짓」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며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사랑하는 「율법」이 빛이 되어 그 진위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164절)

「규례」는 재판, 판결, 그 집행, 판례까지 모든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규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의로우시며 진실하십니다. 악을 멸하시고 악한 자를 도우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찬양, 찬송할 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눈앞에서 보고, 또는 생각해 내어,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그 이상 더 생각할 수 없는 완전수이므로, 「하루」종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는 「할렐루야」의 「할렐루」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할렐루야!」하고 시인이 하루종일

「할렐루야」를 합창하는 모습에서, 시인의 믿음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165절)

「법,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기뻐하십니다.

「율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모르면 「넘어지게」됩니다.

실패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평안」이라는 말은 매우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162절의 「많은 탈취물」과 어조가 비슷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더 없는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더 없는 평안을 받게 됩니다.

어떤 방해나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166절)
「찬양하다」, 「평안」하다 라는
익숙한 단어들에 앞절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어가 「예수」입니다.
「주의 구원」은
「주의 계명」과 같은 음으로,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묘하게 일체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계명」은 그대로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167절)

「증거」는 십계명을 말하며
「지켰사오며」를 다음절에서도 연속으로,
「지켰사오니」라고 말하므로, 시인은 자신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 영혼」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더욱이 161절과 같이 「마음」을 넘어서 「내 영혼이 지켰사오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걸고, 전심으로 전 영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더 이상의 표현이 없을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최상급의 표현으로 「지극히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전심으로 전 영으로 이 이상 더 없이 십계명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168절)

「법도」「증거(십계명)」「길」이라는 키워드 세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열 개의 키워드중의 세 개가 나옵니다.

시인은 모든 힘을 다해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위, 길」은 「나의 전 생애, 전 생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전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인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생활은, 「주 앞에서 사는」생활입니다.
말씀에 사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 있는」삶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것입니다.

「주 앞에」,
시인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눈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리얼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인한테 있어서,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존재가 될수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에 사는 시인한테 있어서의 유일한 현실인 것입니다.